

큰 스님 수행한담

“부처님말씀 따르면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방일품(放逸品) ②

正念常興起 정념상흥기
行淨惡易滅 행정악이멸
自製以法壽 자제이법수
不犯惡名聲 불범선명증

바른 생각을 항상 일으켜서
행을 청정히하면 악은 쉽게 사라지리니
스스로 법으로써 생을 다스리면
계를 범하지 않고 착한 이름 더하리라

發行不放逸 발행불방일
約以自調心 약이자조심
慧能作定明 혜능작정명
不返惡淵中 불반명연중

일을 범함에 방일하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고루잡으면
지혜는 능히 밝음이 되어
어둠의 바다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愚人難解 우인의난해
貪食及好訟 탐안호쟁송
上智常重慎 상지상중신
護斯為寶尊 호사위보존

어리석은이는 깊은 뜻 몰라서

방일하면 허물쌓여 지옥불로 향하고
계 범할까 항상 삼가하면 번뇌벗어나

탐하는 산란심에 다루길 좋아하고
지혜 밝은이는 항상 삼가하여
마음 지키기를 보물 지키듯 한다

莫貪莫好靜 막탐막호정
亦勿斷歡樂 역막기욕락
愚心不放逸 사심불방일
可以獲大安 가이획대안

탐하지 말고 다름을 좋아말라
또한 욕락을 즐기지도 말라
생각깊어 방일하지 않으면
큰안락을 얻을 수 있다.

放逸如自禁 방일여자금
能却之為賢 능각지위현
已昇智慧閣 이승지혜각
去危為即安 거위위즉안

방일을 스스로 금하고
능히 물리쳐 어질게된 이는
이미 지혜의 누각에 올랐으니
위태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다

明智觀於愚 명지관어우
譬如山崩地 비여산여지
居然而身正 거란이신정
彼為獨覺悟 파위독각오
是力過師子 시력과사자

棄惡為大智 기악위대지

지혜로움이 어리석은 사람 보는것은
마치 산이 평지를 대함과 같아
어지러운 속에서도 몸이 바르니
그는 홀로 깨달은 이
그의 힘은 사자보다 더하며
악을 버리고 큰지혜 이룬다

睡眠重如山 수면중약산
癡冥為所弊 치명위소폐
安臥不計苦 안와불계고
是以常受胎 시이상수태

잠이란 무겁기가 산 같아서
어리석은 어둠에 갇힌셈이라
편히 누워 고통을 헤아리지 않으니
그로써 언제나 태를 받는다

不為時自恣 불위시자자
能制難得盡 능제득진
自恣難得便 자자마득편
如獅子搏鹿 여사자박록

스스로 방자할 때가 없도록 하라
능히 제어하면 번뇌가 다할 것이다
방자하면 마구기가 튼을 엮는다
사자가 사슴을 치는 것처럼

能不自恣也 능불자자자
是為戒比丘 시위계비구
彼惡正淨者 파사정정자
常當自護心 상당자호심

능히 스스로 방일하지 않는이
그는 계행 비구라
그의 생각 바르고 깨끗한 이
항시 스스로 마음을 지킨다

比丘謹慎樂 비구근신락
放逸多憂惱 방일다우건
變淨小大대 변정소치대
積惡入火坑 적악입화염

비구가 삼가하길 즐기지만
방일엔 근심 허를 많아서
적은 다름이 큰 다름을 만들고
악을 쌓아 지옥 불로 뛰어든다

守戒福致善 수계복치선
犯戒有懼心 범계유구심
能斷三界漏 능단삼계루
此乃近泥洹 차내근이원

계율의 복을 지켜 선업 이루고
계를 범할까 두려운 마음이면
능히 삼계의 번뇌를 끊나니
이는 열반에 가까운 것이니라 龍眼

혜암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도는 주고 받는 물건이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는 길 밖에 없어요
매일 세끼 밥먹듯 공부하세요”

일반 신도들에게 법문을 할 때는 '아미타불'을 염하고 나서 법문을 시작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부르면 나고 죽는 큰 죄, 팔백점의 죄를 녹여 버리는 공덕이 생깁니다.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부른 공덕이 이럴정도에 참선의 공덕은 말할 것도 없지요.

지엄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생기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두가 자신으로부터 비롯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모두가 남의 탓만 하고 있어요. 이는 죄 받을 일, 죽을 일을 만드는 것과 똑 같습니다. 모두가 '내 잘못'입니다. 내 마음, 내 공로만큼 받는 것이지만 가만 있는데 부처님이 복을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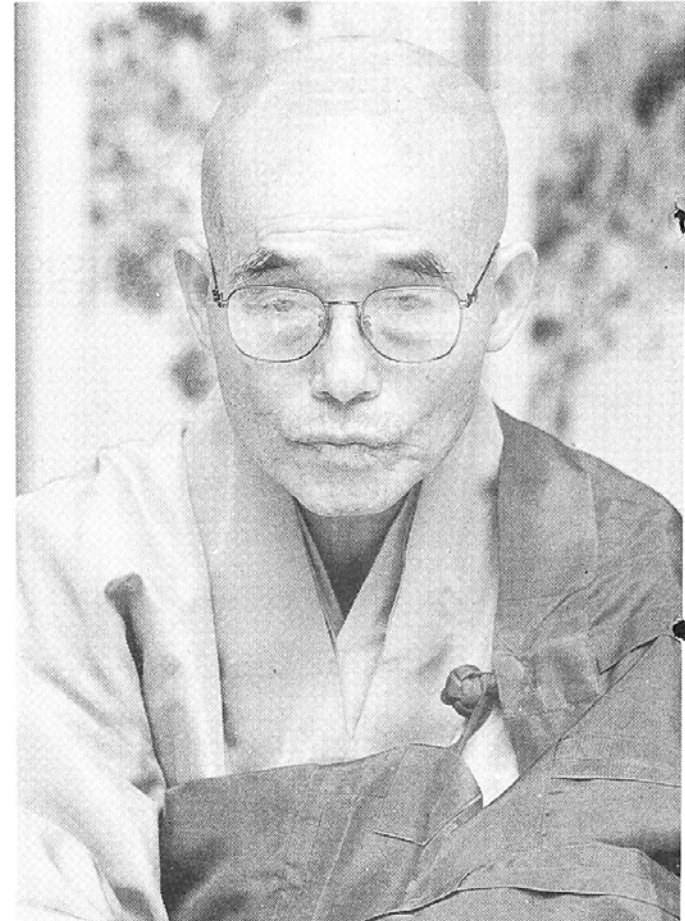
사람들은 매일 세끼 밥을 꼭 챙겨 먹으면서도 법문을 듣는 것에는 게으릅니다. 법문을 듣고 앉아 있으면 다 아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나 행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상봉하기 전까지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법문을 받듯듯이 듣고 이를 부처리히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문을 수없이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 버리는게 우리 중생들이예요. 아무 일도 없으면 삼삼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을 만듭니다. 일이 없으면 공연히 걱정스럽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모두 헛 것인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죄짓는 일을 만들어 냅니다. 육근(六根)이 무사할 때 다시 말해서 여섯 도둑놈이 일이 없을 때가 제일 좋은 때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귀 도둑놈, 눈 도둑놈, 코 도둑놈을 만들어 지옥에 가는 일을 만드는 판국입니다. 이래가지고도 도를 닦지 않는다면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눈 밝은 이가 보면 고생길이나 죽을 길만 일부러 찾아 다니는 것과 같아서 안타까워요.

천지의 은혜보다 귀중한 것이 불·법·승 삼보입니다. 성불할 때까지 이 삼보에 의지해서 험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좋은 법문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말입니다. 나는 일찍이 일본에 건너가 동양철학을 공부하면서 불교사적을 탐독했지요. 그 가운데에서 <선관책진>이라는 책과 일본의 유명한 선승 일후선사의 어머니가 쓴 유언서를 읽고 나서부터는 도를 닦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전부터 내게는 화두 비슷한 묘한 의문이 있었는데 '눈은 왜 두 개가 앞에만 있는 걸까?' 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 시절 나로서는 강한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임제종의 유나(維那)로 계시던 서용스님을 뵈고 <금강경> 한편과 '참선을 하라'는 말씀을 얻은 뒤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내 나이 스물다

- 20년 전법 장성 초
- 45년 해인사에서 인곡스님을 은사로, 효봉스님을 계사로 득도
- 93년 해인총림 방장
- 현 해인사 원당임 주석



“六根 일 없을때 행복한데
사람들은 심심해 어쩔줄 몰라
고생 길·죽을 길 찾아다녀요”

섯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출가의 길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니다. 그 첫째가 부모님의 결혼 간청이었습니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두 번씩이나 선을 봤지만, 남의 처녀한테 못할 짓 하는 것 같아 세 번째 혼담이 나왔을 때에는 출가의 뜻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결혼 한 뒤에 출가하면 안 되겠느냐고 더욱 간절히 부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어 '비구 스님에게라도 시집 올 여자가 있다면 결혼하겠습니다'고 말씀드렸죠. 이말에 두 어른은 머느리감을 두루

찾아 다니시다가 백양사 근처의 어느 절에서 노 비구스님이 '스님과 결혼할 처녀가 있다'고 한 농담을 들으신 것입니다. 귀가 번쩍 뜨이셨지요. 저를 데리고 그곳을 찾아 가셨습니다. 결국 그 노 스님과의 인연으로 나는 그 즉시 해인사로 가 출가하게 되었지요. 아무튼 부처님의 인연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가는 길로 쉽게 출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본식으로 '하이랄라'를 한 걸모양 때문인지 대중공사를 세 번이나 한 끝에 '중노릇 할 위인'이 못 된다는 이유로 해인사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임을

믿고 나뭇간이며 공양간 등에서 자고 하루에 한끼만 먹으면서 불 때고, 물 길고 밥을 하면서 일주일쯤 출가에의 강한 집념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용스님을 다시 만나 나중에 은사가 되신 인곡스님을 뵈게 되었습니다. 출가하고서 맨 처음에 한 것은 공양주였습니다. 가던 날부터 거의 잠도 못자며 불구를 닦고, 밥을 지었습니다. 밥 짓는 양도 잘 맞춰 나중에는 쌀 곳간의 열쇠를 받아 미감의 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신발도 손수 지어 신고 한우 한 벌로 밤 새워 공부했습니다. 고된 행자 생활을 하던 어느날, 주걱으로 밥을 푸다가 문득 '나도 도를 닦으러 왔는데 탄 스님들 공양 준비만 해 주다 시간 다 흘러 보내는 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 옆에 있던 스님한테 '배가 아프니 오늘 아침만 좀 해 주오'라고 부탁하고는 그 길로 떠났지요. 어렵듯이 백련암 뒤에 환적스님이 공부하던 '환적굴'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무조건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일주일만에 꼭 도를 깨치겠어요, 그러지 못할 때는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담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물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교 조각원 서울 종로구 전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대표 이진형 합장